사 설

불교, 통일 주역 나서자

오랜 남북한의 대립 구도는 남북한 모두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된 문화적 정서적 모태를 바탕으로 각각의 다양성이 인정되기 보다는, 오직 내 것만이 옳다는 적대적 논리 속에서 민족은 두 조각이 났다. 양쪽 모두 불완전한 반쪽이면서도 자신이 전부이고 저쪽은 완전히 없다는 병적인 의식 구조가 일반화되어, 결국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자신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접근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병적인 의식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불교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불교는 원효성사가 화쟁사상을 편 이후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커다란 통일성을 지향하는 흐름을 지니고 있다. 이런 훌륭한 전통을 바탕으로 불교계가 남북의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서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남한, 그리고 해외에 이주해 있는 많은 동포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교 나름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 자체가 남한과 북한을 각각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 치우침을 지양하고 공통적 지향성을 찾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중심의 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동등한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시각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불교도 그것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외도가 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남북한의 교류에 불교가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북한을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고정하지도 말고, 그쪽에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와 한민족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이루어야 한다. 불교의 전파라는 조그만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불교의 고유한 방법론과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에 교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 불교 교리와 한국 불교의 전통이 지닌 화합과 통일의 정신, 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 민족의 심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점 등은 불교가 지닌 큰 자산이다. 이런 가능성들을 현실적인 통일 촉진의 힘으로 발현시키는 불교계의 노력이 있어야 할 때이다.

유전자 지도 기대와 우려

인간유전자 지도 초안이 완성되었음이 미·영 두 나라의 정상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한 사건을 능가하는 쾌거라는 말이 의미하듯 이제 세계는 정보산업시대에서 생명공학시대로의 전환에 급한 물살을 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윤리가 장차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가 현실로 바짝 다가섰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학이 인간 삶의 외피를 구성하고 윤리 도덕적 가치는 인간 삶의 질적인 내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였고, 그에 못지 않게 새로운 윤리의 패러다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제 생명공학이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갈 이 시대에 요청 받게 되는 윤리적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불전과 논서에서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서로 연민하는 마음이나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찾아왔다. 따라서 이 시대의 과학이 이제까지 신비의 영역에 가려져 있던 유전자정보를 해독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맞춤아기를 낳을 수 있고 람보같은 인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불전에서 찾아온 인간다움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비록 과학과 의학이 인간이 안고 있었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인간의 생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연장한다고 해도 그 삶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어야 의미있는 것이지,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생명만을 연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비극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다. 불자 역시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자의 가치있는 삶은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성취해 가면서 그칠 줄 모르는 이타적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보살의 삶이요, 성불의 꿈을 실현하는 대비원리의 자세이다.

불전에 네 가지 불가사의의 하나로 중생불가사의를 들고 있다. 그 불가사의는 생명에 대한 신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만을 위하려는 이기적 욕망을 가진 인간이 동시에 이웃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연민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불가사의하다고 하겠다.

이타적 연민심을 보다 더 진지하게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나서는 일이야말로 생명연장의 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 생명관

① 유전자 조작, 인간존엄 파괴인가
②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자 조작
③ 현재의 행위(業)가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생명존엄인가

●게놈지도 초안발표

생명의 신비를 밝혀줄 열쇠인 인간게놈 초안이 6월 26일 마침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난치성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 백신이 개발되고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부작용을 최대한 없앤 '맞춤의학'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된 1차 초안에서는 인간 유전체(게놈)의 97%가 규명됐으며, 85%가 정확히 조합됐다. 특히 인간 DNA를 이루는 약 31억개 염기 중 85%의 염기서열 정보를 조합한 것은 이 85%의 염기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99%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각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만여 개에 달하는 유전자 기능을 종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규명할 수 있게 됐으며, 유전자 기능 연구와 개인간 차이를 나타내는 단일염기변이(SNP)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포스트게놈 시대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기능이 밝혀진 유전자는 1만여개 정도. 그러나 나머지 9만개의 기능이 다 파악될 경우 질병극복은 물론 '맞춤인간'도 가능해 이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연기설로 본 유전자조작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유전자는 진화의 산물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우리'는 업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에서의 인과의 필연성(유전자)은 외적인 원인과 결과이지만, 불교에서의 필연성(業)은 내적인 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내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없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업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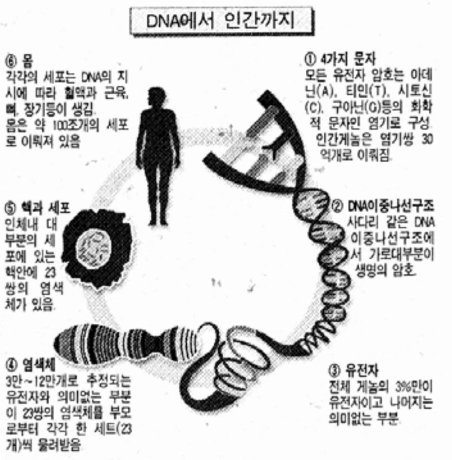
업설과 배치된다는 것은 곧 연기·윤회론과도 어긋남을 의미한다. 업에 의해 생사윤회하며, 우주만물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다수의 원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연기법으로 볼 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변화는 생명질서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미륵경〉을 보면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쯤에는 사람들은 아무런 질병이 없고, 공해도 없고, 농작물이 풍성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고 맛좋은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나무들이 가는 곳마다 숲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원인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모습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인과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 "유전자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고려하면 유전자의 이동에도 의지의 중요성 즉 업설의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대)는 "게놈 프로젝트가 불교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40억년 전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윤회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업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도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교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따라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적인 불교가 미래의 대안종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NA에서 인간까지



◇유전자 조작의 明과 暗

명	암
부작용이 없는 맞춤신약 가능	유전정보 누출로 사생활 침해 우려
질병발생 확률 예측 가능	인간특성 개조로 유전자 계급 사회 도래
암 등 난치병 치료	획일화된 유전자로 생물학적 다양성 상실
거부반응없는 장기이식 가능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
젊고 건강한 장수시대 도래	맞춤인간 등 윤리적 문제 대두

영생추구는 또다른 苦 낳아
불교, 긍정적 발전 유도해야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는 "유전자 조작으로 고매한 인간이 탄생하고 삶이 윤택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를 비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종교적 시각만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삶의 구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봉춘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문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간의 문제이기도 하며, 불교가 말하는 이상세계와 결부시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과학의 '무한대 욕구충족'은 필연적으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불교가 삼법인의 진리를 통해 과학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과학사상 편집장)는 유전자 조작과 윤리·도덕적 문제는 별개라는 견해를 보였다. "생명공학은 유기론적·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생명은 유기론적으로 보면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유전자 조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유전자 조작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윤리·도덕적 문제는 결과에 대한 예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는 "업과 윤회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질서에 역행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하고 "가치론적인 접근보다는 유전자 조작이 어디까지 도달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사는 "유전자 조작은 영생을 바라는 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만큼 고(苦)를 낳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혼돈을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행위(業)가 문제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행위(業)'가 그것이다.

유전자 조작이 불교교리에 배치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이런 차이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은 '생명질서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조작행위'를 문제삼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떤 업을 쌓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업설에 배치되건 그렇지 않든 간에 유전자 조작을 '업'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다만 전자는 유전자 조작 행위(業)로 인해 反인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불교가 생명태동 방식보다는 내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 자신을 결정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인간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행위가 문제라고 말한다. 즉 업이 문제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와 '조작된 인간의 행위'의 문제인 것이다.

●불교의 지향점

기존의 생명관은 생명의 기원에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생명의 현상을 여실하게 관찰함으로써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즉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존엄해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이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도 적절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전자 조작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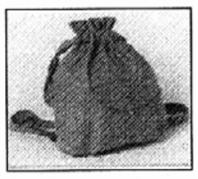
'맞춤인간'이 유전자 조작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획일화된 문명 속에서 자의적 수행에 무관심한 오늘날의 현대인 역시 '사회'라는 유전자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맞춤인간'이나 다름없다.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 문제는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에 대한 사랑, 즉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지혜와 자비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곧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유전자 조작으로 비롯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마땅히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실과 유전자 조작으로 초래될 지도 모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大) ₩35.000

◀B-1004(大) ₩32.000

■벙거지

<팔각>
▲B-1005 ₩20.000

<타원형>
▲B-1006 ₩20.000

<조리개, 끈>
▲B-1007 ₩20.000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72)636-6546/632-6546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건지불교사	02)739-3032	건성불사	02)735-3543	태성불교사	02)732-7375
	제일불교사	02)73500918	대복전	02)737-0969	이화불교사	02)720-1700
경기	화계사	02)997-7517	도선사매점	02)906-2279	구룡사	02)575-7766
	봉녕사	031)256-4127	포교원	031)253-1055	양평불교사	031)771-4747
	구리만물	031)563-7554				
부산	부다가야	051)865-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산사의 뜰	051)508-6300
광주	금성상회	062)369-1937	혜동불교백화점	062)224-6696		
대구	삼영출판사	053)425-4097	통화불교사	053)255-0784	봉은불교사	053)424-5462
대전	보문불교서점	042)257-0161	용혜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송복사	042)254-8772
강원	원주금강불교사	033)743-7442	강릉관음불교사	033)642-8880	홍천이화불교사	033)434-8446
	춘천동해불교사	033)256-984	치악산구룡사팔각정	033)732-1216		
경남	진주관음불교사	055)743-46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마산불교종합전시관	055)255-6678
	김해일광불교사	055)325-0780	창원경남불교전시관	055)295-8911		
충남	천안불교백화점	041)551-4765	동양불교사	041)865-4544	백제불교사	041)855-5621
전북	이리유기	063)855-3883	상운각	063)274-6639	거북불교사	063)532-2996
	남원불교사	063)625-0234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氏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